

## 창립 70주년을 앞둔 대한체질인류학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

박정현<sup>1</sup>

<sup>1</sup>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ahead of Its 70th Anniversary

Jeonghyun Park<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natomy & Cell Biology,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status of member management, academic conferences, and journals over the past three years (2022~2024) to understand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analyze the factor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its development, and propose practical solution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number of members and conference registrant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h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Additionally, the number of presentations at academic conferences was not substantial.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did not increase, and the research fields of them remained restricted. A survey on the association’s name revealed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d a name change was necessary, with a preference for renaming it to ‘Society for Anatomy and Biological Anthropology’, aligning it with the journal’s title. The author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First, after verifying the participation decision of all members, membership tiers and benefits should be assigned to enhance members’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Second, the association’s website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by reinforcing its role as a communication platform. Third, to revitalize academic conferences and journals, external activities and scholastic exchang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actively promoted. Fourth, changing the association’s name could help clearly define its identity and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association, active participation and input from its members are essential. Additionally, the executive committee must carefully consider and respect the valuable opinions of members to ensure the society is properly positioned for the future.

**Keywords** :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Academic conference, Association’s name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rch 10, 2025; **Revised:** March 18, 2025;

**Accepted:** March 25, 2025

**Correspondence to:** 박정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E-mail:** [jhpark@kangwon.ac.kr](mailto:jhpark@kangwon.ac.kr)

## 서론

대한체질인류학회는 1958년 창립된 이래 해부학자들의 학술 교류의 장으로써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학회 창립 초기에는 대한해부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으

나 1988년부터는 독립적인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해부학자들을 위한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1]. 특히, 올해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대구 계명대대에서 개최할 제68회 학술대회에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 학회는 연례 학술 행사와 더불어 1988년에는 ‘대한체질인류학회지(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의 발간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학회지의 명칭을 해부·생물인류학(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체질인류학뿐만 아니라 해부학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도 학회지에 담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을 살펴보면 학회의 미래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우선, 학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 1회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참가자의 규모와 발표 논문의 수는 국내 학회이며 학술대회가 봄에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회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렵다. 학술대회의 성패는 학회지 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 4회 발간되는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수도 많지 않고, 매년 한국학회지인용색인(KCI) 등재지의 필수요건을 겨우 갖추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며, 게재되는 논문의 분야도 다양하지 않다.

학회의 명칭은 학회의 상징이며, 대내외적으로 학회의 정체성을 알리는 간판이다. 우리 학회 명칭의 일부인 ‘체질인류학’은 영어로 ‘Physical Anthropology’이다. 그러나 ‘체질’은 불행히도 한의학 분야에 구심점에 있는 이제마가 창시한 사상의학에서 주로 거론되는 용어와 뜻은 전혀 다르지만 글자가 동일하며[3], 일반 국민들도 한의학과 관련된 용어로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오해와 편견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상황이지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사용한 학회 명칭으로 인하여 학문 분류에 오류가 생기거나 연구자들이 한의학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학회 회원들의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학회의 회원 관리, 학술대회 및 학회지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개편 혹은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한체질인류학회 전체 회원 및 신입 회원의 수는 2022~2024년 3년 동안 학회의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한 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최근 3년간의 학술대회 발표 연제 수는 학술대회 초록집을 확인하였고, 학술대회 등록비를 납부한 인원을 집계하였다[4-6]. 본 학회 ‘해부생물인류학’ 학회지 게재 논문 수 및 분야별 분류는 최근 3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회 명칭에 대한 유지/변경 및 신규 명칭 제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9일에서 23일까지 2주 동안 전체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Fig. 1).

### 학회명칭 유지/변경 및 신규 명칭 제안 설문조사

- 설문 조사 기간: 2024년 10월 9일(수) ~ 2024년 10월 23일(수) 2주간  
- 설문 대상: 대한체질인류학회 전체회원

Google에 로그인하여 진행상황을 저장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표시는 필수 설문임

---

이메일 \*

이메일 주소

---

1. 현 학회명칭(대한체질인류학회)을 변경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대한체질인류학회'로 현행대로 유지

2) 학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3) 의견없음

---

2. 1번 문항에서 2) 또는 3)을 선택한 경우 변경하고 싶은 학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 해부생물인류학회(학술지명과 동일)

2) 대한해부생물인류학회

3) 별도의 명칭 제안(3번 문항에서 원하는 학회명칭을 써 주세요)

---

3. 제안하고자 하는 학회 명칭을 써 주세요.

내 답변

Fig. 1. Survey questions on maintaining/changing the association's name.

## 결과 및 고찰

### 1. 연도별 전체 회원 현황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회원은 2022년 188명이고, 2023년 231명이며, 2024년에는 262명이다. 신입 회원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3명이고, 2023년에 31명이고, 2024년에 4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회원 대비 신입 회원 비율은 2022년 22.9%, 2023년 13.4%, 2024년 15.3%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기존에 운영하던 학회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회원 정보의 이동이나 재가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입 회원 가입 절차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입 회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회원 중 실제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 회원으로서 활동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회원의 소속이나 직급에 따라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른 혜택을 공지하는 등 학회 회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통해 학회 회원 수의 실질적인 증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 2. 연도별 학술대회 개최 현황

2022년 제65회 학술대회는 5월 19~20일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개최되었고, 등록 인원은 91명(전체 회원 대비 48.4%)이었으며, 연제 수는 총 42편이었다. 2023년 제66회

학술대회는 5월 16~17일에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열렸고, 등록 인원은 82명(전체 회원 대비 35.5%)이었으며, 연제 수는 총 42편으로 제65회 학술대회와 동일하였다. 2024년 제67회 학술대회는 5월 16~17일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되었고, 등록 인원은 85명(전체 회원 대비 32.4%)이었으며, 연제 수는 총 37편으로 소폭 감소하였다(Tables 2, 3).

학술대회의 개최시기가 1학기의 학사일정 중에 교내의 행사가 많은 5월에 개최되었고, 연간 연구 성과가 확보되는 시기가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회 회원 대비 학술대회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제 수도 빈약한 상황이다. 물론, 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특강과 심포지엄의 연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학술대회의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아울러, 학술대회 개최장소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개최되어 초청 연자의 섭외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에 등록하는 회원의 수가 제자리 걸음이었다.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 공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연도별 학회지 게재 현황

2022년 학회지 게재 논문 수는 총 20편이었고, 각 호별로 게재 논문 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2023년 게재된 논문 수는 총 25편이었고, 4호에 9편이 게재되었다. 2024년 게재된 논문 수는 총 34편이었고, 게재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4호는 10편에 이르렀다(Table 4).

2024년에 게재된 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학회지 각 호의 원고모집 안내문을 사전에 전

**Table 1.** The ratio of new members to total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022~2024)

Year	Total members	New members	Ratio of new members to total members (%)
2022	188	43	22.9
2023	231	31	13.4
2024	262	40	15.3

**Table 2.** The number of presentations at the academic conference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022~2024)

Year	Special lecture	Symposium	Oral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Total
2022	2	5	14	21	42
2023	3	4	14	21	42
2024	3	3	12	19	37

**Table 3.** The ratio of registered members to total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022~2024)

Year	Total members	Registered members	Registration rate (%)
2022	188	91	48.4
2023	231	82	35.5
2024	262	85	32.4

**Table 4.**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in each issue of the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2022~2024)

Year/Volume	Issue 1	Issue 2	Issue 3	Issue 4	Total
2022/35	5	4	6	5	20
2023/36	5	5	6	9	25
2024/37	8	8	8	10	34



**해부·생물인류학회지 38권 1호 원고 모집 안내**

- 발행일: 2025년 3월 31일(월)
- 원고모집: 2025년 2월 24일(월)까지
- 연구분야: 육안해부학, 인류학, 조직학, 발생학, 생물학, 해부학교육 등
- 원고종류: 원저, 증설, 증례보고, 단편보고, 사실 등
- 논문 접수: 대한체질인류학회 홈페이지 <https://aba.jams.or.kr/>
- KCI 등재: 게재료 없음, 영문 혹은 국문 작성

**37권 4호 목록**

1. 체질, 생물 진화: 인류학 본과 명칭의 변화
2.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 본 조선 시대 검안시장의 학술적 가치의 기능성
3. 대학 학부생의 진화 인식: 교육 경험과 종교성을 중심으로
4. 대한제국 검시기록에서 이사로 위장된 살인사건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
5. 사람 뼈대 표면 연구를 위한 효율적인 연화 방법 연구
6. Fabrica내 베살리우스의 실종터부에 관하여
7. 사유체계 확립을 위한 화의과대학의 예과 대상 교과목 설계
8. 종말 세관에서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밀차섬유의 질이 비교 연구
9. 돼지 간 유래 탈세포화 세포발달방향질 히이스렐 지지체를 활용한 가습생상피세포의 3차원 배양
10. Clinical and Prognostic Significance of TSC2 and TSC1 Expressions in Rectal Cancer

**Fig. 2.** Call for papers for Volume 38, Issue 1 of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Figs. 2, 3). 또한 처음 투고하는 회원들의 투고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투고 및 심사 과정에 불편함을 해소한 것도 투고 및 게재 논문 수의 증가에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3년간 게재 논문들을 분야별로 분류해보면, 육안해부학 분야의 논문이 28편(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학교육학과 인류학 분야의 논문이 각각 20편(25.64%), 13편(16.67%)을 차지하였다. 신경해부학 분야의 논문이 2편(2.56%)으로 가장 적었다(Table 5).

**Table 5.** Classification of published papers by field in the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2022~2024)

Field	Year			Sum	Ratio (%)
	2022	2023	2024		
Gross anatomy	9	8	11	28	35.9
Histology	1	2	2	5	6.4
Neuroanatomy	0	1	1	2	2.6
Anthropology	3	3	7	13	16.7
Medical education	5	6	9	20	25.6
Others	2	4	4	10	12.8
<b>Total</b>	<b>20</b>	<b>24</b>	<b>34</b>	<b>78</b>	<b>100</b>



**Fig. 3.** The websit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2019년 학회지명을 ‘해부·생물인류학’으로 변경한 사유 중의 하나는 게재 논문의 분야를 육안해부학뿐만 아니라 해부학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기대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교육 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의학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증가하였고, 신입 회원 중 인류학 전공자들의 증가로 인류학 투고 논문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부학의 주요 분야인 조직학, 발생학, 신경해부학 분야의 게재 논문은 전무하거나 희박하였다. 우리 학회지는 국제 학술지가 아니고 국내 학술지로서의 한계점은 명확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논문 투고가 가능하고 투고료가 무료인 점을 부각한다면 폭 넓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논문 투고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 4. 학회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한체질인류학회’ 학회 명칭의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응답자 79명)에서 학회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6명(70.9%)이었고, 기존 명칭을 유지하자는 응답자는 21명(26.6%)이었다. 아울러, 학회 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31명(55.3%)은 ‘해부생물인류학회(Society for Anatomy and Biological Anthropology)’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대한해부생물인류학회(Korean Society for Anatomy and Biological Anthropology)’로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도 23명(41.1%)이었다(Fig. 4).

체질인류학은 기존의 형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구집단이나 인종 간의 차이를 밝혀내는 범주에서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미국체질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는 학회 차원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학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학

회 명칭을 미국생물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Biological Anthropologists)로 바꾸고 이듬해 2022년부터 학회지 명칭도 함께 바꾸었다[2]. 국내에서도 2021년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문적 명칭 변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7].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학회 명칭에 포함된 ‘체질’이라는 용어로부터 유발되는 대중의 오해와 연구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바빠 학회 명칭의 개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언 및 결론

대한체질인류학회의 연간 공식적인 학술 행사는 단 1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학술대회의 개최시기가 5월이기 때문에 가을 학술대회에 비해서는 발표 논문이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5월은 학사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는 시기이고 스승의 날을 비롯한 학교 행사도 빈번한 시기라 학회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해부·생물인류학’ 학회지는 연 4회 발행되고 있으며, 의학 분야 학회지 중 드물게 우리글 논문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한국학회지인용색인(KCI) 등재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편수인 20편을 채우기 위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고를 권고하고 있으나, 투고 논문 수가 많지 않고 투고 논문의 게재율이 높아 학술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1992년에 학회에 가입하였고,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부회장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학회장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학회장님들로부터 고견을 청취하였고, 현 집행부 임원들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감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 학회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학회의 미래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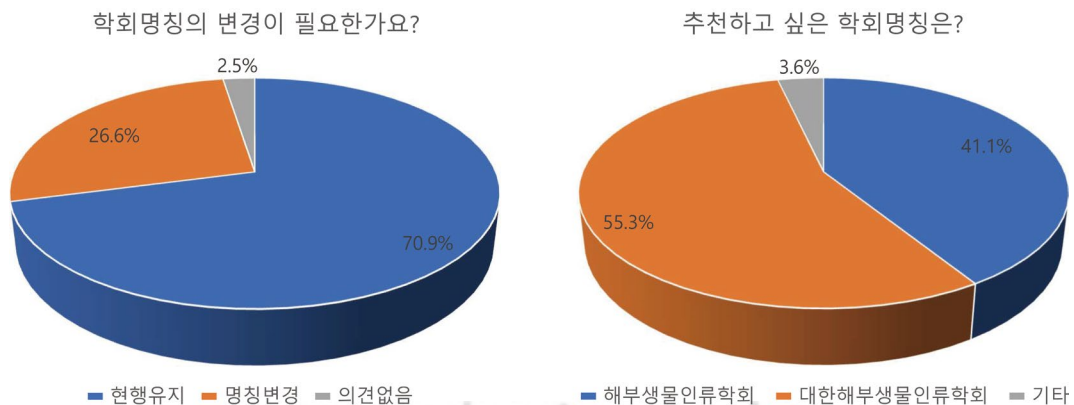


Fig. 4. Survey results on need for improvement of the association's name

고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회 창립 70주년이 임박한 이 시점에 학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회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 가입 회원의 숫자에 비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의 비율이 매우 낮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학회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회원이 적지 않고 그 회원 수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 학회 회원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록, 이 과정에서 학회 회원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학회 회원으로서 활동 의사를 밝힌 기존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학생 회원, 일반 회원 등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맞는 권리, 의무, 혜택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입 회원 유지이다. 이미 언급한 결과에서 보듯이 신규 가입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회 발표를 위한 가입인 경우가 많고, 학회 회원으로서 학술 활동을 이어가는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신입 회원 가입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학회 가입 시 축하 메시지나 기념품을 제공하며 학술대회에서 신입 회원들을 위한 별도 행사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신입 회원 소개, 기존 회원 동정, 정년퇴직 회원 인사, 구직구인 광고 등 학회 회원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학회 공지사항, 외부 수신 공문, 연구비 정보, 회원 경조사 등의 유익한 정보도 게시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학술대회의 연계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홍보와 교류가 필요하다. 우리 학회의 이미지가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단체로 각인되어 있어서, 정작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학회지 투고를 주저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던 동료 해부학자들 중 일부도 그런 오해로 인해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도 하다. 학회 산하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외부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학술 행사의 공동 개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 1회 개최되는 학술대회만으로는 학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회지의 투고 논문 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노

력과 희생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해부학 및 생물인류학과 맥을 같이하는 관련 학술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학술 행사의 공동 개최를 기획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이 풍성해지고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범주가 넓어지면 당연히 우리 학회의 자리매김도 굳건해질 것이다.

여섯째, 학회 명칭을 변경하여 학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나타내고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회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체질’이라는 용어가 한의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연구자들이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신청을 하면 한의학 분야 학술대회에 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학회 명칭으로 인해 매번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학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제언들을 바탕으로 학회 발전을 도모하려면, 학회장을 비롯한 학회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는 학회장 임기가 시작하면서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술위원장만으로 유지되던 학술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하였고, 편집위원회의 위원도 각 분야별로 배치하였다. 학회 개최 장소 또한 지리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낮은 휴양지에서 대중교통으로도 방문 가능한 도심의 대학 캠퍼스로 변경하였다. 월 1회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 학회 관련하여 얻는 정보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학회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다. 학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새롭게 탈바꿈하는 학회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cited 2025 March 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iprdDetail?iprdId=IPRD00010184#>
2. Woo EJ, Kim MS, Lee D, Seo MW. A review of the sub-disciplines and their changes in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Anat Biol Anthropol*. 2024;37:125-31.
3.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ited 2025 March 7]. Available from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Info/119642?InfoType=2>
4.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cited 2025 March 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696199>
5.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cited 2025

- March 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763901>
6.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cited 2025 March 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763901>
7. Hwang YI. Research experience of physical anthropology and suggestions. 2021. Proceedings of the 64nd Annual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p. 1-3.

**간추림** :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학회의 회원 관리, 학술대회 및 학회지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개편 혹은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며,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대한체질인류학회 회원 수와 학술대회 등록 인원은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학술대회의 연제 수도 많지 않았다. 학회지 게재 논문 수도 증가하지 않았고 그 분야도 제한적이었다. 학회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학회지명과 동일한 ‘해부생물인류학회’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저자는 학회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회원들에게 학회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 등급 및 혜택을 부여하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것이다. 둘째,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학술대회와 학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과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것이다. 넷째, 학회 명칭의 변경을 통해 학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위의 제언들을 바탕으로 항구적인 학회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회 집행부 임원들은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잘 받아들여 학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대한체질인류학회, 해부·생물인류학, 학술대회, 학회 명칭